

순천시, 시민 참여 ‘원도심 리빌딩 프로젝트’ 본격화

행사·점포 지원 탈피 공간활용 중심
하반기 민·관 TF 구성 콘텐츠 논의
2030년까지 단계별 로드맵 실행 계획
청년·예비창업자 ‘실험 점포’도 도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쇠퇴해 가는 원도심을 문화생활과 경제활동이 어우러지는 중심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원도심 리빌딩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기존 1회성 행사나 개별 점포 지원 위주의 단편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유휴 공간과 자원을 시민·청년·상인·전문가와 함께 새롭게 채울 계획 이어서 주목된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정책 제안부터 실행까지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030년까지 단계별 중장기 전략을 수립,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 주민과 청년, 상권 관계



순천시가 원도심을 문화 생활과 경제 활동이 어우러지는 중심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원도심 리빌딩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도심 활성화 TF 위원 위촉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순천시 제공>

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도심 활성화 TF’를 발족한다.

이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원도심에 시급하게 필요한 기능과 핵심 콘텐츠가 무엇인지 시민들과 함께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이어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전문 기관 용역

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장기 방치 건축물과 유휴 공간 현황을 진단하고 각 공간 활용 가능성과 지역 주민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재정 여건·사업 효과 검토를 마친 이후 2029년부터 2030년까지 행정 절차에 맞춰 단계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건물을 짓는 물리적 개발보다는 원도심이 지닌 고유의 역사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기존 공간에 새로운 쓰임새를 부여하는 ‘리빌딩’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차없는 거리 버스킹 보며 막걸리 한잔 즐겨요”

장성군, 오늘부터 장성역 앞 특설 무대
‘영천막걸리축제’ 4대 명품 막걸리 시음
황룡강가을꽃축제 연계 지역 상권 활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지역 개성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심 거리 축제를 선보인다.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3일까지 장성역 일원에서 차 없는 거리 버스킹과 ‘제3회

영천막걸리축제’를 개최한다.

8일 개막하는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를 앞두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전 행사다.

먼저 1일과 2일 오후 6시에는 장성역 앞 도심 한복판에서 차 없는 거리 버스킹이 펼쳐진다. 군은 양평해장국부터 칠구뽕뽕동닭까지 약 50m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특설 무대를 설치한다. 트로트, 통기타,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지역 가수 8명이 무대에 올라 가을밤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장 주변은 다채로운 먹거리와 디지털을 판매하는 상가 밀집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인근 식당에서 구입한 음식을 거리에서 편안하게 즐기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야외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한다.

이어 개천절인 3일에는 매일식육식당부터 무궁화공원 주차장 일원에서 제3회 영천막걸리축제가 열려 장성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전통주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

축제 시음 행사에서는 저온 숙성과 천연 양념수로 빚어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는 보혜양조

‘순회’, 합성첨가물 없이 쌀과 누룩으로만 맛을 낸 청산녹수 ‘편백소 산소 막걸리’, 장성 사과즙을 더해 청량감이 뛰어난 장성주조장 ‘홍길동생막걸리’, 황룡주조장 ‘축령산 생막걸리’ 등 지역 대표 주조장 4곳에서 각각각색의 탁주를 선보인다.

이 밖에 막걸리 빨리 마시기, 블라인드 테스트(제품 맞추기), 막걸리병 던져 세우기 등 이색 이벤트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시·공연이 펼쳐진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8일 개막하는 전국 규모의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에 앞서 군민과 관광객들이 가을의 정취를 미리 만끽할 수 있도록 버스킹과 막걸리축제를 준비했다”며 “장성의 고유한 맛과 도심 거리의 낭만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화순군·광주 북구, 관광·체육발전 ‘맞손’
홍보관 운영·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협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은 30일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광주 북구와 관광·체육 분야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행정구역 통합 후 양 지자체가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한 첫걸음으로 임지탁 화순군수와 신수정 북구청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지역이 보유한 관광 자원과 공공 체육시설을 연계해 5대 핵심 과제를 공동 추진한다.

주요 협력 사업은 ▲관광 홍보관 상호 운영 ▲온·오프라인 공동 홍보 ▲연계 관광 코스 개발 ▲관광객 인센티브 상호 제공 ▲공공 체육시설 상호 이용 등이다.

군은 지역 간 방문객 교류가 늘어나면 숙박업소, 음식점,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내수 진작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지탁 화순군수는 “양 지역의 관광·체육 자원을 융합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겠다”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생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야간 식당 ‘구레 밤한끼’ 10곳 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관광객들의 야간 식사 불편을 해소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월부터 행사장과 주요 관광지 인근을 중심으로 낮은 식사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10곳을 ‘구레 밤한끼’로 지정해 운영한다.

그동안 구례는 지리산과 섬진강 등 자연 자원으로 많은 방문객을 끌어 모았으나 저녁 시간대 문을 여는 식당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관광객 체류와 소비를 지역 내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각종 축제 기간마다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지난달 참여 업소를 공모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소를 선정하고 야간 영업체계를 구축했다.

선정된 업소 외부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야간 식사 가능 지정 스티커’가 부착되며 군 차원의 홍보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밤한끼 사업을 통해 구례를 찾은 방문객들이 저녁 시간 겪었던 외식의 불편함을 덜게 됐다”며 “관광객이 편안하게 식사하며 오래 머물 수 있는 야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넓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구례=김세종 기자



사순문 장흥군수,閱시장 만나 현안 건의

해양·농생명산업특구 등 지원 요청
농어촌기본소득·지방도 조기추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30일 “최근 사순문 군수가 민행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만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특별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 군수는 ▲해양·농생명산업특구 지정 및 지원 특례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장흥 녹용·유지 간 지방도 817호선 4차로 확장·포장 사업 조기 추진 등 산업·복지·교통 분야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장흥군은 현안들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경

우 해양·농생명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에 따른 군 재정 부담 완화, 광주권과 장흥을 연결하는 교통여건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효과가 장흥을 비롯한 중남권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정책 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건외한 현안은 장흥의 미래 경쟁력과 군민 생활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전남광주특별시와 지속 협의회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대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담양교육청, 제19회 청죽골 아카데미 성료

엄유진 작가 초청 삶의본질·관계 성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담양교육지원청은 30일 “최근 담빛농업관 대강당에서 담양·곡성·구례·장성 지역 교직원과 담양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청죽골 아카데미 첫 번째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카데미는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삶이 이해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교육 역량을 기르기 위해 기획됐다.

첫 강연은 엄유진 작가를 초청해 ‘기억과 기록 사이’를 주제로 진행됐다.

엄 작가는 알츠하이머를 앓는 어머니와 함께 한 일상을 바탕으로 삶의 본질과 관계의 의미를

담담하게 조명했다.

2007년 담양 교원들의 전문성 연수로 출발한 청죽골 아카데미는 현재 인근 곡성·구례·장성 지역 교직원과 학부모까지 대상을 넓혀 운영 중이다. 다양한 교육 주제가 한자리에 모여 연대와 소통을 강화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죽골 아카데미는 오는 10월과 11월 각각 한 차례씩 2·3차 강연을 추가로 이어갈 예정이다.

김진홍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삶과 교육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바라보는 인문학적 성찰의 자리로 준비했다”며 “참석자들이 일상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고흥군, 침수 예방·수질 개선 785억 확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 대응 결실
총 2천500억 투입 하수도 등 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7년 하수도 신규사업

공모에서 총 4건이 선정돼 국비 471억원을 포함한 총 78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새롭게 확보된 예산을 통해 저지대 침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은 ▲고흥읍 도시침수 예방(482억원) ▲도양 용정 등 3개소 하수처리구역 확대(78억원) ▲점암 연봉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122억원) ▲도양 잡두 등 3개소 폐류생산해역 마을하수도 정비(103억원) 등이다.

군은 기존에 진행 중이던 8개 사업 예산인 1

천723억원을 포함 총 2천508억원의 예산을 투입, 하수도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고흥읍 도시침수 예방사업 등을 통해 매년 반복되던 저지대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깨끗한 하수도 서비스를 누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